

배터리 소재 국산화 시동... 공주 탄천산단에 피치공장 첫 삽

포스코케미칼-OCI 맞손

합작 '피앤오케미칼' 963억 투입
내년 준공... 연산 1.5만톤 규모
포스코케미칼에 우선 공급키로

2025년 글로벌 수요 약 15만톤
배터리 성장에 수요 급증 전망

포스코케미칼이 OCI와 손잡고 배터리용 음극재 중간소재인 피치(Pitch) 국산화에 나선다. 전량 수입하던 소재를 직접 생산하고 음극재 원료·중간소재·최종제품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완성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포스코케미칼과 OCI의 합작법인 피앤오케미칼은 21일 충남 공주시 탄천산업단지에서 피치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주현 포스코케미칼 기획지원본부장, 김유신 OCI 부사장, 김종국 피앤오케미칼 사장, 최원철 공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피앤오케미칼은 963억원을 투자, 연산 1만5000톤(t)의 음극재 코팅용 피치 공장을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피치



21일 열린 피앤오케미칼 음극재용 피치 공장 착공식에서 최원철 공주시장(왼쪽 네번째부터), 포스코케미칼 김주현 기획지원본부장, OCI 김유신 부사장, 피앤오케미칼 김종국 사장이 사십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는 석탄이나 석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탄소 물질로, 음극재의 표면 코팅과 알루미늄 제련 공정의 바인더 등으로 활용된다.

음극재 코팅용 피치는 일반적인 피치보다 녹는점이 높은 석유계 고연화점(高軟化點) 제품이 사용되며, 배터리 충방전 속도를 높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독일 등이 주요 생산국으로 국산화가 꼭 필요한 소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양극재를 함께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은 피치 공장이 건설되면 고품질의 맞춤형 음극재

중간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음극재용 피치는 2025년 글로벌 수요가 약 15만t이며,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앤오케미칼은 제품을 포스코케미칼 음극재용으로 우선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원료·중간소재·제품생산에 이르는 음극재 사업 밸류체인 전체를 완성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원료는 포스코그룹의 탄자니아 광권 투자를 통해 천연흑연, 자회사 피앤씨텍의 침상코크스 생산 등

을 통해 인조흑연을 확보했다. 중간소재인 구형흑연은 중국 청도중석 지분투자 및 피치 내재화로 공급망을 갖췄으며, 이를 통해 최종 제품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음극재를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포스코케미칼 김주현 기획지원본부장은 이날 착공식에서 "OCI와의 협력으로 음극재 코팅용 피치를 국산화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에서 양사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OCI는 세계 최대의 액상 피치 제조업체로 현재 연간 53만t 규모의 액상 피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피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OCI는 이번 공장 건설로 기존의 제철공정 부산물을 활용한 석탄계 액상 피치에서 배터리 소재용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고연화점 피치 등의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수익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OCI 김유신 부사장은 "포스코케미칼과의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전자소재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필수 소재인 고연화점 피치의 최초 국산화를 이루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오케미칼은 2020년 7월 포스코케미칼이 51%, OCI가 49%의 지분으로 설립한 합작사로 반도체 공정소재인 초고순도 과산화수소와 음극재용 피치 등의 첨단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에도 원료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분공시 규제 우회, 위반사례 엄정조치”

금융감독원-KRX, 자본시장 현안 논의 “상장사 ‘경영전념’ 환경조성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사들이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자본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상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 김환식 코넥스협회 회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경영권 영향 목적 대량보유 보고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장사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조달 여건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안정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해 발행인의 실질적인 공시 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부담 경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도 ESG 공시 기준 확보, 회계처리 업무 지원 등을 통해 상장사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제 ESG 공시표준이 세워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ESG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이사장은 “ESG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제적인 공시표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 현실에 비추어 국제기준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 가이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 설립 및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ysl@

갤럭시 Z 플립4·폴드4,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 인도서 전작대비 1.7배 동남아시아서 1.4배 판매성과 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가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전작을 훨씬 뛰어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인도는 전작 대비 1.7배, 동남아시아 지역은 1.4배의 성과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동남아시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전작 대비 2배,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는 1.

7배의 실적을 올리는 중이다.

중남미의 브라질과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도 Z 플립·폴드 시리즈의 반응이 뜨겁다. 지난 9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해당 지역에서는 전작 대비 약 1.5배의 판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난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2’ 프레스컨퍼런스에서 벤자민 브라운 구주 총괄 마케팅팀장(상무)이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의 초기 출하량이 전작 대비 2배 증가하며 판매 초기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작보다 Z 폴드 시리즈의 인기

가 올랐다. Z 플립3와 폴드3의 경우 7대 3이었다면,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의 글로벌 판매 비중은 6대 4로 집계돼 전작과 비교해 ‘폴드’의 선전이 돋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4의 경우 그라파이트 색상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동남아 등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에서는 보라퍼플 색상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갤럭시 Z 폴드4의 경우 그레이 그린, 팬텀 블랙, 베이지 색상의 판매 비중이 4대 4대 2로, 전 지역이 유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9일 일본에 이어 11월 중동·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의 글로벌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허정문 기자 zelkova@



21일 오전 현대자동차의 오미크론 함유 2가백신 스파이크박스 2주를 실은 백신수송차량이 이천의 현대자동차 물류창고에서 출발하여 평택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창고로 향하고 있다.

내달 11일 오미크론 잡는 2가백신 접종

예방접종 추진단, 추가접종 시행계획
모더나 2가 도입, 화이자도 도입키로
면역저하자·고령층 최우선 대상

다음 달 1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 능력이 있는 모더나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고령층이 최우선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1일 국내외 백신 개발·허가 동향, 백신효과 등을 고려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모더나의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 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모더나 ‘스파이크박스’는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이날 출하됐다.

임상시험 결과 스파이크박스 2주 추가접종은 SARS-COV-2 과거 감염력이 없는 참가자 그룹에서 오미크론 대항 중화항체를 약 8배 증가시켰다. 기존 스파이크박스 주와 비교 시, 새롭게 승인된 스파이크박스 2주는 오미크론 하

위 변이체 BA.4와 BA.5에 대해 더욱 강력한 중화항체반응을 이끌어냈다. 접종 이전과 접종 이후 BA.4, BA.5 변이에 대한 기하 평균 배수 증가(GMFR)를 살펴보면, 스파이크박스 2주는 접종 이전에 비해 항체가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더나의 2가백신은 식약처 품목허가에 따라 18세 이상 기초접종(1·2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접종 차수에 관계없이 2가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이 권고된다. 4차 접종을 받은 후 4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적으로 2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0월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1순위 접종군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 2순위 대상군인 ▲50대 및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도 접종을 권고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